

새 동력 얻은 인터넷뱅크, 시중은행 떨고있나?

케이·카카오뱅크 등 자본 확충 숨통
시중은행·카드사 시장 방어 위기감
새로운 인터넷은행 등장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언급 이후 금융권에서 인터넷뱅크가 뜨거운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일단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지분은 4%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이 장벽을 34% 정도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은 물론이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비금융권 기업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반색·난제 해결 속제

일단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런 변화를 반기고 있다. 그동안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벌써 새 사업에 관심이 크다. 케이뱅크는 출시를 미루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KT가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이 걸림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인터넷전문은행 및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물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을 노리는 비금융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돌이다. 현행 은행법 시행령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 시 최근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 등의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카드사 바짝 긴장

반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업계 전반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정보통신 기업의 전문성, 두둑한 자금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디지털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이 전 사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우리은행이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본력을 강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져 카드업계의 위기감도 만만치 않다.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등장할까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사회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NH농협, KEB하나, 신한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금융권 업체 중에서는 인터넷파크, 키움증권, SK텔레콤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2015년 1차 모집 당시 SK텔레콤, NH N엔터테인먼트, 기업은행, 현대해상 등과 함께 아이뱅크 설립을 추진했다가 고

배를 마신 인터넷파크는 참가 의사를 밝혔다. 증권사지만 최대주주인 정보통신업체 다우기술이 지분 47.7%를 보유하고 있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 키움증권도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인 KT가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어 시장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에 오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주장도 있다. 기존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로 얻는 이익이 많지 않고 비금융권 업체들은 후발주자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넘어설 혁신적인 전략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jay@donga.com

현대카드, '더 그린' 카드 출시



현대카드가 프리미엄 카드 '더 그린' (사진)을 출시했다.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1%를 M포인트로 기본 적립하고, 월 카드 이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 시 기본 적립 포인트의 1.5배, 200만 원 이상 시 2배를 적립해준다. 온라인 전용 발급카드로 모집비용을 절감해 혜택을 강화했다. 세계 800여 곳의 공항 라운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티 패스(Priority Pass)와 인천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호텔 무료 발레파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14만5000원, 해외겸용 15만원이다.

IBK,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IBK 기업은행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사진)을 연다. 일반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이벤트로 공모 분야는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교육, 문화 예술 등이다. 개인 또는 단체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2팀, 각 300만원), 우수상(3팀, 각 100만원), 참가상(6팀, 각 30만원)을 선정한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파이팅 코리아” 은행권도 AG 지원

KB금융 카누·신한금융 탁구단일팀
우리은행은 리듬체조 서고는 후원

은행권이 18일 개막하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비인기 종목 후원을 통해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후원 선수의 성적과 인기에 따라 은행 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개선 효과를 노리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카누 스프린트, 슬라럼, 용선(드래곤보트) 등을 후원하고 있다. 용선 종목은 남북한이 단일팀으로 참가해 관심이 크다. 카누 외에 KB금융지주는 배드민턴, 수영, 농구 등에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NH농협은행 스포츠단 국가대표 선수단과 이대훈 은행장(가운데)이 아시안게임 출전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NH농협은행

리듬체조 국가대표 서고은을 후원하는 우리은행은 선수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록 이번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서 선수가 출전하는 대회의 훈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구와 테니스 팀을 운영하는 NH농협은행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자사 정구팀 소속 김영태, 백설, 문혜경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이밖에 신한금융지주는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된 탁구단을 후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정정욱 기자

시원하게 착용하는,
여름을위한 마셔츠!

여름의 **필수아이템**,
휴가철 꼭 있어야 하는
요즘 대세 여름 마셔츠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인필라**를 검색하세요.
파격할인가!
(1+1)2장
59,800원

매력적이고 중후한 멋의 세련된
무지마셔츠와 다운여름을
시원하게 날려줄~
휴가철 당신의 멋을
한껏 실려주는 **하와이안셔츠**
캐주얼 바지는 물론, 청바지에도
한상적인 코디가 될 것이다.

스카이블루 블루 레드 네아비 꽃1 꽃2 꽃3

사이즈: 95, 100, 105, 110 색상: 스카이블루, 블루, 레드, 네아비, 꽃1, 꽃2, 꽃3 (**화이트, 블랙** 있습니다)

※모임 및 단체주문 환영※ **1899-1898** 계좌: (기업) 104-091520-01-015 예금주: 한국 뉴미디어
인터넷 주문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인필라**를 검색하세요. 카드결제가능(5개월이자) 전국 어디든지 우체국택배 3,000원(제주도, 산간지역포함)